

# 나주에 가면 '청년 창업거리' 있다

### 나주 읍성권 내 서성문·금남길 등 1km 구간에 점포 16곳 신규 창업 2021년까지 8억여원 투입...원도심 지역경제·도시재생 활력 기대

나주시 원도심의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청년 창업 거리가 조성됐다. 나주시는 원도심 읍성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거리 조성사업이 최근 완료돼 점포 16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는 공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지속가능성, 의지, 창의성 등을 평가해 청년 창업주 16명을 선정했다. 2021년까지 8억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장 리모델링, 상가 입차, 홍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

다. 청년 창업 거리는 읍성권 내 서성문과 금남길, 금성관길, 나주로 등 1km 구간에 조성됐다. 청년 창업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녹아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점포가 들어섰다. 목공예·캐릭터 아트상품·원예·디퓨저·국악커뮤니티 등 문화와 예술창작이 8곳, 갈비탕·카페·제빵 등 먹거리 5곳, 웨딩·주방 소품·아기 옷 등 의류·잡화 점포 3곳이다. 15일 예정된 개장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 창업 거리 조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역사와 문화자원에 특화된 읍성권의 관광,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창업주들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 상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심 청년 창업 거리에 대한 문이나 참여 희망 등은 나주문화원으로 하면 된다. 나주는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도읍지가 된 뒤 1000년의 역사를 지녀 온 유서 깊은 곳으로 나주읍성권을 중심으로 4대문을 비롯해 금성관, 목사내야 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기자 노트

### 장흥군청사 건립 제대로 된 안전진단부터

수년째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흥군 청사 건립 사업은 건축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과 7월에 이어 최근 '장흥군청사 신축 공역자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장흥군과 장흥군의회는 갈등이 증폭됐다. 청사를 신축하려면 기금 조성(5년)에서 내부 행정 절차(2년)를 거쳐 공사기간(2년) 등 최소 10년 가까이 소요된다.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들면 장흥군의 신청사 사업은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장흥군은 지난 2018년 현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안전취약시설물)'을 받은 탓에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와 일부 사회단체에서 41년 노후건물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대에 맞는 현대식 건물 빌



김용기 제2사회부 중부취재본부장

요성을 강조, 신청사 건립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장흥군의회는 '장흥군청사 신축 공역자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3차례나 부결했다. 의회는 지난 2018년 건축전문기술사가 진단한 "현 건물이 균열이나 변형, 파손 등에 의해 구조체 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우선 기공과 보에 대한 보강공사만 실시하면 내구성이 확보된다"는 종합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장흥군은 청사 신축 사업이 담보 상태에 빠지지 의회와 함께 '건축전문기술사'를 초빙, 정밀판단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16년 12월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4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올해까지 304억원(이자 4억원 포함)을 확보했다. /kykim@kwangju.co.kr

# 함평전통시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다음달 17일 공식 개장 앞두고, 첫 정책간담회서 방안 모색



함평군은 지난 21일 이상의 군수 주재로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신설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의 군수가 주재한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고동석 부군수와 각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함평군은 현안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음달 중순 개장을 앞둔 함평전통시장(구 함평5일시장)의 운영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7월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함평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1903년 개설돼 낡은 5일시장을 아케이드 구조물 내 현대식 점포로 개선, 지역경제 중심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함평전통전통시장은 기존 5일시장 자리에 부지

면적 9251㎡, 매장면적 1282㎡ 규모로 오는 10월 17일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기존 5일시장을 매일시장으로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총 41개 입점예정 점포 중 절반이 넘는 21곳부터 시범적으로 상설 운영한다. 새로 조성될 시장 중앙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플라마켓(버룩시장),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행사 등을 열 계획이다. 시장 관광투어, 한우 등 지역 특산물 할인 이벤트 데이(월 1회) 등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함평=황윤화 기자 hwang@kwangju.co.kr

또 이날 제시된 고보조명(조명을 통해 글자·그림 등을 표출) 설치, 푸드트럭 조성, 공유가드 대어, 포토존(핑크클리 산책로) 조성,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세계문화 체험부스 설치 등 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의 군수는 "새로 개장하는 함평전통시장 지역을 대표하고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화 기자 hwang@kwangju.co.kr



강진군 관계자들이 생태공원 인근 도로변 및 매립시설 주변에 친환경 갈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 강진만 갈대 엮어 경관울타리 설치 눈길

### 도로변·매립시설 주변 가림막 역할...철제 펜스보다 친환경적

강진군이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잘라낸 갈대를 울타리로 엮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만의 친환경 갈대 울타리를 도로변이나 매립시설 주변에 오는 29일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정화센터 입구 도로변 등에 세워진 갈대 울타리는 높이 2m, 총길이 약 800m이다. 인공시설물을 격리하는 가림막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연도금 자체 펜스보다 친환경적이다. 강진군은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3월 강진만 생태공원 내 갈대 군락지 4만2000㎡ 갈대 제거작업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험과 사전만 갈대 제거작업 현장 방문 결과, 한 번 잘라낸

뒤 새싹이 자란 갈대가 생명력이 더 강하고 풍성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처음으로 갈대 제거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강진군은 당초 잘라낸 갈대를 갈대 축제에서 음식 부스 차폐막과 공원·쉼터시설 조경에 사용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축제가 모두 취소돼 친환경 울타리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갈대는 친환경적이라 경관조성 작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며 "앞으로 제거작업 이후 채취된 갈대를 가을축제 개최시 음식 부스 차폐막으로도 사용하고 미관개선을 위해 갈대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에게도 일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화순군, 내달 1일부터 1000원 버스 운행

화순군이 100원 택시에 이어 1000원 버스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운행한다. 화순군은 지난 22일 화순교통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요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 단일 요금제가 적용되면 성인 1000원, 중고생(만 13~18세) 800원, 초등학생(만 6~12세) 500원 요금으로 화순 지역 어디든지 오갈 수 있다. 버스카드 할인 혜택과 1차례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화순지역을 벗어나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 요금은 기존보다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성인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요금에 인상되더라도 화순지역을 이동할 때는 1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00원 버스 운영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대금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